



학교급식법 개정 시민견기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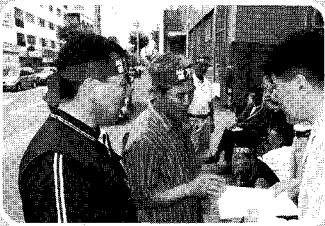
한농연이 참가하고 있는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지난 11일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여의도 한바퀴 시민견기대회”를 개최했다. 학교급식개정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걸으면서 정부, 정치권에 개정을 촉구하고 급식법 개정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교조 등 관계단체와 학생 및 교사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기철 한농연 부회장은 “급식법 개정을 위한 운동이 벌써 5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면서 “올해 안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고 당부했다.



전국 각지 농민들 '투쟁선포' 물결

“대책 없는 국회비준 반대·쌀대책 수립” 촉구



쌀 협상 국회비준에 반대 각 도연합회는 지난 16일 투쟁선포식과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 보호대책과 이면합의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사무실 앞에서 열린 투쟁선포식에서 강우현 회장은 “수입쌀이 유통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미마저 붕괴돼 전체 한국농업 몰락과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원도연합회는 18개 시군의 한농연 임원 및 회원 150여명이 참가하여 “대책없는 쌀 협상의 국회비준 반대와 향후 농업통상협상시 농민 참여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고정직불제금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발농사 등 전면적인 직불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충청북도연합회는 16일 오전 11시에 한농연, 한여농 및 전농 등 농민단체장 50여명이 참석하여 충북도청 앞에서 쌀 국회비준 저지 투쟁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충북도의 강력한 투쟁의지를 전달하였으며, 농민 총궐기대회를 치르기 위해 현수막 달기 운동, 국회의원 확약서 받기 운동 등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포하였다.

충청남도연합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후 이희경 충남 농정국장, 최영두 농



쌀 협상 국정조사 평가 및 쌀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는 농민대표자 약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쌀 협상 국정조사 평가 및 쌀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를 6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쌀 협상 국회비준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 쌀 협상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협상 과정 및 시스템상의 문제점, 국내 쌀산업 및 농업 보호 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하여, 위기에 처한 쌀산업과 농민생존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장배 농림부 통상정책관, 신명운 한농연 정책부회장이 주제발표에 나섰고 지정토론자로 국회농해수위 조일현 열린우리당 의원,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 윤석원 중앙대 교수, 서진교 KREI 수석연구원, 박정희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총재, 김진필 한



정유통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쌀협상 국회비준 관련하여 한농연의 입장과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투쟁선포식을 개최한 전북도연합회는 강현욱 전북도지사와 정길진 전북도의회의원, 최규성 열린우리당 전북도당을 차례로 방문 ‘대책 없는 쌀협상 국회비준 반대 투쟁선포 대회 결의문’을 전달했으며, 경남도연합회는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을 방문해 쌀협상 국회비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며 쌀협상 국회비준 반대 서약서 서명을 요청했다.

한농연경북도연합회는 16일 경북도청 앞에서 한여농경북도연합회, 경북지역 농축협조합장협의회 등 농민과 조합장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쌀 협상 국회비준 중단과 농업통상협상 전략수립, 농민참여보장 등 10개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특히 이날 집회는 경북 각 시·군에서 모인 지역농협조합장 100여명이 동참해 쌀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으며, ‘WTO’와 ‘쌀 협상’에 대한 화형식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각 도에서는 농민단체들이 투쟁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쌀 협상 국회비준 반대와 쌀 산업대책을 천명했다.

농연 전북도회장, 이재길 외교통상부 DDA 대사가 참석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정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에서 총체적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국회비준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농민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한농연 회원 및 농민 대표자들은 국회비준에 앞서 결과에 대한 철저한 규명, 근본적인 쌀 보호대책 수립, 책임자 처벌, 협상 시스템 정비 등을 촉구했다.



기반공사, 이경해 열사 묘역 인근부지 농민 임대 한농연전북·장수군연합회 반발, 항의방문



전라북도 임원 및 김진필 회장은 농업기반공사전라북도 김익수본부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가 이경해 열사 묘역 인근부지 일부를 농민에게 임대해 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한농연전북도연합회는 이경해 열사의 성역화사업의 예정부지 가운데 일부인 9000여평을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지사장 최관호)가 농민에게 임대해줬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필 한농연전북도연합회장은 지난 8일과 13일 두 차례 농기공전북본부를 항의 방문, 시설하우스 설치작업을 중단함은 물론 기 설치된 하우스의 철거를 강력 요청한 바 있다. 또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추모 기념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농업인교육센터 건립 예정 부지 4만8300평에 대해 한농연에게 임대해 줄 것을 농기공에 요구했다.

또한 김남수 한농연장수군연합회장은 “누구보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농업기반공사가 이경해 열사 기념사업회의 농업인교육센터 및 농업공헌자기념관 건립 부지 예정지를 임대해 준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농업기반공사전북본부(본부장 김익수)와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지사장 최관호)측은 “유휴 농지 활용차원에서 1년간 임대를 해줬으나 현재 기념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임대자에게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철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림시서 옥수수 생산, 강원 한우농가에 공급 예정



강원도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에 진출해 4만여평의 밭에 옥수수와 메밀 등을 파종했으며, 지난 8일에는 유기질비료 전문업체인 삼광농장(영업이사 노지현)과 협력관계를 체결했다.

실제 도 연합회는 지난해부터 중국진출을 위해 해림시를 3차례 방문, 사업타당성을 조사했으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옥수수를 주작목으로 생산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생산된 옥



자전거 상경 1인 시위 나선 김기현 전 고창군회장

김기현 고창군 연합회 전회장이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쌀 협상 국회비준'에 반대하는 1인 상경 자전거 시위를 해 화제가 됐다.

김기현 회장은 22일 오전 전북 고창군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서울을 향해 총 450km를 힘든 여정을 출발했다. 김기현 회장은 "쌀협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시작했으며, 서울에 도착하면 국회의장과 청와대에 고창 쌀을 전



김기현 전 고창군회장이 농림부 관계자들을 만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달하고 국회비준 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1인 시위에 쌀 협상 국회비준 반대' 등의 문구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자전거 뒤에는 태극기와 한국농업경영인 깃발을 꽂은 그의 모습에서 이 나라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한 굳은 결의가 보여졌다. 고향인 고창군 상하면에서는 논 1만 2천평과 밭 3천평 등 총 1만 5천평의 논과 밭을 경작하는 김기현 회장은 "쌀 수입을 막아 농민이 진정으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22일부터 6박7일 간의 일정으로 서울을 향해 매일 50-60km씩 총 450km를 달려 28일 서울 여의도에 도착해 전국농민대회에 참가 할 예정이었으나, 전국농민대회가 잠정 유보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정보다 앞당겨 24일 서울에 도착했다. 서울에 도착한 김기현 회장 김춘진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농업회생의 근본 대책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 반대'를 위한 350만 현장 농민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김기현 전 회장의 2박 3일 간의 자전거 상경 투쟁은 이로써 끝났지만 김 전회장의 농업에 대한 애착만큼은 전국 농업인 및 한농연 회원들에 좋은 귀감이 되었다. 또한 각 언론사에서 김기현 회장의 상경 동향 및 사진을 보도하는 등 자전거 상경 투쟁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수수는 강원도 한우 사육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며 수익성이 높으면 재배면적을 50만평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삼광농장과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농민들이 우수한 품질의 유기질비료를 값싸게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수만 회장은 "갈수록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진출은 열악한 강원도 농지여건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농민대표단 쌀 협상 국회비준 반대 단식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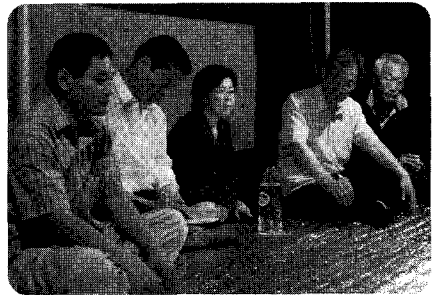
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쌀 협상 무효와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20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족의 생명인 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사수하는 데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다"며 "실패한 쌀 협상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국회비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단식농성에는 한농연중앙연합회의 서정의 회장을 비롯해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표가 참여했다.

농민대표단은 단식농성기간 중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실시하였다. 또한 22일에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의 면담을 갖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 이를 실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민대표들이 쌀협상 국회비준 반대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좌측사진 : 왼쪽부터 정재돈 가톨릭농민회 회장,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김애경 민주노동당 대표,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농민대표자 단식농성 해단 기자회견, 28일 농민대회 잠정 유보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 단식농성장)에서 단식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6월 28일(화)로 예정되어 있던 ‘대책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 농민대회’의 개최를 잠정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월 13일 결성된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농업회생의 근본 대책 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 강행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해 왔으며, 농업통상협상 시스템 개선, 소득보전 직불제 직불금 인상, 쌀수급 대책 수립, 식량자급을 목표치 법제화, 쌀 대북지원 정례화 등 10대 요구사항의 관철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지난 21일(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쌀 협상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미룰 것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정부도 특별대책반(TF팀)을 가동하여 쌀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을 보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정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투쟁성과를 평가하

고, 쌀산업 보호와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350만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와 정치권이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농민대표자들이 단식농성 해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